

3·1운동 訊問調書を 통해 본 조선인들의 ‘불만’ 과 ‘독립’ - 학생과 농민을 중심으로

윤현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Discontent” and “Liberation” of Koreans Found in the Interrogatories for the March 1st Movement: With a Focus on Students and Farmers

HyunSang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by focusing on their statements in the interrogatories retrieved from the *Source Book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s*,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ogato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peopl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majority of those who were investigated were students in Seoul and farmers in Gyeonggi-do. Then, this study traces why they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This study compiles their complaints and checked how their “discontent” could be connected to “liberation.” While students were mostly interested in “education,” and clearly expressed their discontent, the farmers were discontent with their livelihoods and tax under the rule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nd were not as clear at expressing their discontent. The interrogatories also confirms that some Koreans had no complaints but thought that liberation was needed. It is difficult to classify such people, but some people cried out for liberation without knowing the meaning of the term, only to understand its meaning later in prison. The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at times imparted after the movement ex post facto.

Key words : *March 1st Movement, Interrogatories, Discontent, Liberation*

I. 序言

3·1운동에 대해서는 시위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부터, 주도 계층에 대한 연구,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각종 사례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는 3·1운동을 ‘민족’ 중심의 당위적이고 거족적인 운동이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권태역, 2013), 시위 문화 자체의 형성(김정인, 2009), 시위를 통한 주체성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천정환, 2009)들이 등장하였다. 그 밖에도 지방시위에 대한 연구 등(이정은, 2009) 3·1 운동에 대한 연구는 점차 그 폭을 넓혀가, 민중 개개인에 대한 연구로까지 진전되어 가고 있다.

3·1운동 당시의 민중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이 스스로를 말한 사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중의 의도는 지배자들의 언어와 기록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남아 있다(라나지트 구하, 2008). 이런 상황에서 3·1운동 당시의 ‘신문조서’는 3·1운동에 참여했던 기층 민중들의 거의 유일한 발화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문조서는 그간 3·1운동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신문조서라는 자료의 특징 상, 신문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행위나 역할을 부인·축소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신문조서만으로 3·1운동을 재구성할 경우 오히려 3·1운동에 대해 잘못된 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3·1운동 신문조서는 그간 민족대표의 부르주아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그 발언이 소환되는데 그치곤 했다(박찬승, 1989).

근래에 들어 신문조서를 활용한 연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3·1운동의 미디어와 주체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신문조서를 활용한 연구를 비롯하여(천정환, 2009), 신문조서에 드러난 ‘평화’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나(전상숙, 2009),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연구에서 신문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도 등장하였다(한금순, 2015). 나아가 구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만세시위의 기초적 측면들을 재구성한 연구도 등장하였다(배성준, 2009).

그러나 여전히 신문조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3·1운동 신문조서를 살펴보면서, 신문조서의 조사 대상과 이들이 했던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발화의 추적을 통하여, 신문조서에 투영된 피신문자들의 의식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3·1운동 신문조서를 활용하는 방식을 시험적으로 시도해보고, 나아가 3·1운동이 당시 민중의 민중들에게 지녔던 의미를 학생, 농민의 두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²⁾에 실린 3·1운동 訪問調書を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집은 판결문이 아닌 경찰 단계의 신문조서가 포함되어 있

1) 趙成雲, 「資料解題 :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URL: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hd&fileName=intro_hd.pdf. 검색일: 2017년 6월 15일.

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86~2007.

어 민중들의 발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2장에서는 해당 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민중들이 지녔던 ‘불만’과 ‘독립’에 대한 복합적인 발화를 살펴볼 것이다.

II. 신문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

우선 대상이 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제11권~제27권)에 등장한 3·1운동 관련자들의 면면을 확인하여 보자. 이를 통해 신문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에는 경찰, 검찰의 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예심 신문조서, 공판시말서 등이 실려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검찰, 경찰, 예심의 신문조서를 활용하되 증인 신문조서는 제외하였다. 증인 신문조서가 주로 순사, 순사보, 면서기 등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조서는 다른 피신문자와 성격이 다르며, 증언의 성격도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3·1운동 신문조서에 기록된 인물들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중복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에 3·1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신문을 받은 사람 1,047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람들의 거주지, 직업 등을 분석하여 볼 것이다.

우선 인물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남아있는 3·1운동 신문조서가 지역적으로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6명을 제외 한 1,041명의 거주지를 분석 한 결과이다.

<표 1> 신문조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 (단위 : 명)

지역	인원	지역	인원
강원	16	전북	11
경기	395	충남	7
경남	5	충북	10
경북	2	평남	10
경성	491	평북	18
인천	5	평양	7
대구	2	함남	26
대전	1	황해	17
전남	8	기타	10
		합계	1,041

<표 1>을 통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에 실린 신문조서는 경성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의 재판기록이 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기록한 문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시위가 활발히 일어났던 안성(197명)과 수원(116명)의 거주자가 많았다.

지역별 분포가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직업별 분포는 어떠했을까? <표 2>는 신문조서 등장인물의 직업별 분포도이다.

<표 2> 신문조서 조사대상자의 직업 (단위: 명)

직업	인원	직업	인원
공업	43	무직	38
관공리	32	상업	125
교사	28	수산업	2
기타	1	종교인	65
농업	391	학생	316
		합계	1,041

<표 2>를 통해 신문을 받은 3·1운동 참가자의 70%가 농민 또는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과 학생의 숫자가 비슷한 것은 서울, 경기지역의 기록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자료집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표 1>과 <표 2>를 조합하여, 지역별 3·1운동 참가자의 직업군을 살펴보자.

<표 3> 신문조서 등장인물의 직업 - 지역 별 인원

	공업	관리	교사	기타	농업	무직	상업	수산업	종교인	학생	미상	합계
강원					14				1	1		16
경기	8	12	8		312	5	28	1	6	12	3	395
경남			1		1		3					5
경북		1					1					2
경성	35	16	12	1	9	26	73		34	284	1	491
기타							1		2	7		10
대구			1						1			2
대전					1							1
인천							3			2		5
전남					5	1			1		1	8

전북		1	2		3		2		1	2		11
충남					3		1		1	2		7
충북					4	1	4		1			10
평남			1		3		1	1	4			10
평북			2		7	1	1		5	1	1	18
평양			1			2			4			7
함남		2			19	1	2		2			26
황해					10		2		2	3		17
미상						1	3			2		6
합계	43	32	28	1	391	38	125	2	65	316	6	1,047

<표 3>은 <표 1>과 <표 2>를 통해 확인한 3·1운동 신문조서 등장인물의 직업과 지역을 함께 살펴본 자료이다. 3·1운동 당시 경성에서 거주하면서 체포되었던 인물들의 59%는 학생이었다. 경성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학생들은 전체 조사를 받은 학생의 90%에 달한다. 학생들은 눈에 띄도록 경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농민들의 신문 비율이 높은 것은, 경성까지 올라와 재판을 받을 정도의 격렬한 3·1운동이 농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1운동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어떠하였을까? <표 4>는 3·1운동 신문조서에 등장한 인물들의 직업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헌병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들의 연령대가 20~30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신문조서 등장인물의 직업 -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공업	관공리	교사	기타	농업	무직	상업	수산업	종교인	학생	미상	합계
10대	5	4	1		25	4	11		1	78	2	131
20대	21	14	11		131	18	59	1	6	228	3	492
30대	11	9	12		127	5	40	1	10	10	1	226
40대	4	4	3		64	4	9		24			112
50대	2	1	1		39	3	5		18			69
60대				1	4	4			5			14
70대					1				1			2
합계	43	32	28	1	391	38	124	2	65	316	6	1,046

그렇다면 20~30대가 가장 많이 체포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 나이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880~1890년대에 출생한 1900년대에 10대 시기를 보낸 20~30대가, 한국병합을 비롯한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일본의 ‘문명화’작업에 직면해야 했던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문조서에 등장하는 농업자의 상당수는 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성의 경우 일본인의 직접 이주와 경제침탈이 가장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역이었으며(허영란, 2009 : 324), 따라서 일방적인 수탈과 저항의 관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20~30대가 성장기에 접해왔던 대한제국의 국민 만들기의 작업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그러한 1900년대의 상황들은 이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 이들 20~30대의 학생과 농민들이 가졌던 불만과 그것이 ‘독립’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신문조서에 드러난 학생과 농민의 ‘불만’

앞 장에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 관련 신문조서의 지역적 배경은 서울과 경기지역이고, 직업적 배경은 농민과 학생이 주를 이루며 참여 연령대는 20~30대임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이야기 한 지역적, 직업적, 연령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적, 직업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3·1운동에 참여한 여러 구성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3·1운동의 원인이 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통계는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잘 정리된 바 있지만,⁴⁾ 여기에서는 학생과 농민을 구분하여 이들의 불만의 특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신문과정에서의 발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려 한다.

헌병경찰로 대표되는 식민권력자들은, 3·1운동 참가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현재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를 되풀이하여 물었다. 이는 일제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3·1운동 단순 가담자와 의식적인 주동자를 구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총독정치 전반에 대한 불만을 묻는 이러한 질문은 형태를 다소 달리하면서 신문조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김소영, 「대한제국기 ‘국민’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등을 참조할 것.

4) 이에 대해서는 권태역, 앞의 글, 3장을 참조할 것.

문 : 피고는 이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군중 속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는 독립을 희망하여 운동에 참가했지만 깊은 생각은 없었다.

문 : 총독정치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있는가.

답 : 그런 일은 없다.⁵⁾

독립을 희망하는지,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묻는 신문과정 속에서, 조선인들은 불만이 있든 없든 어떠한 답을 내 놓아야 했다. 혹자는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지만, 혹자는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연희전문학교 학생 金漢泳의 대답은 불만이 없다고 대답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金漢泳은 신문조서에서 만세를 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당시 독립에 대한 깊은 생각은 별로 없었고, 주변에 만세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독정치에 대한 불평’은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없다”라는 한 마디로 정리된다. 정말로 金漢泳이 3·1운동 당시 독립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었고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를 이것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통해 그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처벌을 경감 받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내용은 신문조서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체 1,047명의 신문자 중 불만유무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사람으로 214명을 확인할 수 있다.⁶⁾ 그 중 불만이 없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14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였다. 불만이 있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71명, 모호한 대답을 한 사람은 2명이었다. 이를 직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농민은 78명 중 66명(84.6%)이 불만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11명(14.1%)만이 불만사항을 이야기 한 반면, 학생은 122명 중 불만이 없다는 사람이 71명(58.2%), 불만이 있는 사람이 51명(41.8%)이었다. 전반적으로 공부할 한 학생층이 無學의 농민층에 비하여 총독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도 구체적이었으며, 신문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이 신문 과정에서 관철하여 이야기하던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학생들의 불만사항부터 살펴보자. 불만이 있다고 밝힌 학생 51명 중 36명은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다. “조선에서의 교육기관은 열등하므로 그 점을 불만”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다.⁷⁾ 이러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 三一運動 V, 金漢泳 訊問調事.

6) 이는 ‘불평’ 혹은 ‘불만’을 키워드로 하여 집계한 것이다. 신문조서에는 이 밖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불만여부를 물어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례가 더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이 다를 경우 그 대답의 모호성도 함께 증가하여 불만의 여부를 수치화 하여 통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제외하였다.

학생들은 거의 전부 18세~30세 사이의 학생들로, 대부분 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정도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일부는 유학생, 나머지 일부는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인과의 교육과정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신문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의 불만사항 중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사항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우의 차별에 관한 것이다. 이 때 민족 간 차별문제가 별도의 독자적인 요소로 등장하기 보다는, 교육정도의 미비를 언급하면서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졸업 후 관리임용 및 진로와도 연계되어 있는 불만이였다.

“같은 중등 정도의 학교에도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는 그 정도가 틀리고, 또 조선인은 중요한 관리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점이 불만이다. 조선이 독립되면 그러한 불만이 없어지므로 이 전부터 조선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학교에서 조선인이나 일본인이 받는 과업은 같은데 일본인은 상당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도 밖에 인정하지 않으며 같은 수업을 받고도 학력의 차별이 있는 것이 불만의 하나이고, 또 졸업 후의 대우도 틀리고, 또 일본인은 조선인을 멸시하는 혐의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품게 되는 하나이다.”⁹⁾

3.1운동 신문 당시 불만을 이야기 한 학생들은, 이 밖에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활동, 언론 집회의 자유 부재 등을 불만사항으로 들었다. 전반적으로 학생층의 불만사항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듯, 교육문제를 중심축으로 하여 정치적 자유, 민족차별, 동화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불만사항은 어떠하였을까? 12건에 불과한 불만사항을 확인 해 보면, 비록 그 표본이 적긴 하지만 학생층의 불만사항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공동묘지 제도와 주세, 담배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의견을 비롯하여,¹⁰⁾ “합병 전보다 세금이 많은 것 같다”거나,¹¹⁾ “순사가 남의 집에 함부로 출입하는 것이 불만”이라

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三一運動 IV(이하 ‘三一運動 IV’ 등으로 표시). 李龍治 訊問調書.

8)三一運動 VI. 金龍觀 訊問調書. 그 밖의 불만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표>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9)三一運動 V. 陳演根 訊問調書.

10)三一運動 XIV. 李舜基 訊問調書.

11)三一運動 XIV. 李仁榮 訊問調書.

는 이야기도 있었다.¹²⁾ 나아가 일부 유교소양이 있는 농민들¹³⁾은 “병자년의 江華府조약, 을미년의 馬關조약을 무시하고 조선을 병합한 것이 가장 불평”이라고 언급하면서 왕정복고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민층의 불만은 병합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과 헌병경찰의 무도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교육제도나,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농민들의 신문조서 속에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3·1운동을 촉발한 여러 불만사항들이 철저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의 측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¹⁵⁾

IV. 신문조서에 드러난 ‘불만’과 ‘독립’의 관계

이상에서 신문조서에 나타난 ‘불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불만이 없다고 대답한 조선인들은 정말로 불만이 없었던 것일까? “아무런 불평도 없을 뿐 아니라 구한국시대보다도 생명재산의 안전함을 얻고 또한 우리들이 현대문명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감사하는 바”라고¹⁶⁾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신체의 구속과 처벌의 압박 속에서 총독부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고 처벌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없다고 이야기 한 이후의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으나, 그것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묻는 대로 예하고 대답한 것”이라는 말은 신문조서에 계속하여 등장한다.¹⁷⁾

이런 상황 속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는 행위는 그만큼 피신문자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조선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3·1운동 신문조서에 나타난 ‘불만’과 ‘독립’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전체 신문 인원 중 1/3정도에 불과했다. 농민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의 유무와 독립 여부에 대한 발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三一運動 XIV. 李聖律 訊問調書.

13) 직업에는 농민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신문조서의 내용을 읽고 파악해 보았을 때 농업에 종사하던 유교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4) 三一運動 VII. 白觀亨 訊問調書.

15) 1910년대 무단통치와 일제 관행의 이식 속에서 조선인들이 품었던 일상적 차원에서의 불만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태익, 앞의 글을 참조할 것.

16) 三一運動 III. 鄭求喆 訊問調書.

17) 三一運動 XII. 洪琰玉 訊問調書.

<표 5> 학생들의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및 독립 희망 여부

	독립을 희망함	독립을 희망하지 않음	독립에 대해 잘 모르겠음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있음	51명 (42.5%)	-	-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없음	44명 (36.7%)	20명 (16.7%)	5명 (4.2%)

<표 6> 농민들의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및 독립 희망 여부

	독립을 희망함	독립을 희망하지 않음	독립에 대해 잘 모르겠음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있음	10명 (13.0%)	-	1명 (1.3%)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 없음	46명 (59.7%)	13명 (16.9%)	7명 (9.1%)

<표 5>와 <표 6>을 통해서 학생과 농민의 ‘불만’과 ‘독립’의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전체 학생 중 42.5%, 전체 농민 중에서는 13%의 사람들이 각각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독립을 희망한다고 신문 과정에서 말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시위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보이는 안성 농민 宋禹弼의 발언은 독립의 희망과 동시에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문 내용이다. 이는 병합 이후 총독부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고, 그러한 불만이 3·1운동의 ‘독립만세’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 : 총독정치에 대하여 불평이 있는가.

답 : 매년 음력 정월과 8월의 자기 집에서 만든 술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이다.

문 : 그런 불평은 조선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가.

답 : 우리 마을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고 있다.

문 : 그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바라고, 그 시위운동으로 만세를 불렀는가.

답 : 그렇다.¹⁸⁾

18) 三一運動 XIV. 宋禹弼 訊問調書.

학생들의 경우에도 앞 장의 金龍觀의 경우처럼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독립의 희망과 연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성고등보통학교 생도 全俊禧도 “일선인이 받는 교육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멸시를 당하고 있으므로, 독립을 하면 그런 불만이 없어지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¹⁹⁾ 세브란스 의전의 金鳳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육과 독립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었다.

문 : 피고가 독립운동에 찬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불평이 많이 있으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그 불평의 두세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제도가 불완전한 것, 즉 조선은 2,000만의 인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비가 없고 전문학교가 겨우 세 학교 있는데 불과하며, 또 일본 도시에는 인구 30만에 관립 중학교가 5개교나 있는데 비해 조선은 극히 소수이다. 또 정치 방면에서는 총독정치는 조선을 마치 식민지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또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것은 좋은 토지를 매점한 까닭으로 일부 조선인은 드디어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특히 이주 문제는 내가 항상 목격하고 있는 바이다. 이 같은 불평이 있으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²⁰⁾

이와는 반대로,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이 없고 조선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표 5>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중 16.7%, 농민 중 16.9%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안성군 농민 朱宗基의 증언은, ‘무지’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²¹⁾

문 :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가.

답 : 나는 독립의 뜻도 모른다.

문 : 일본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합병 이전의 조선과 같이 되는 쪽이 좋은가, 어떤가.

답 : 나는 아무래도 좋다.

문 : 그러나 피고는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았는가.

답 : 만세를 부르면 독립이 된다고 해서 불렀으나 나로서는 아무런 뜻 없이 불렀던 것이다.

19) 三一運動 VI, 全俊禧 訊問調書.

20) 三一運動 VII, 金鳳烈 訊問調書.

21) 이러한 ‘무지’를 통해 혐의를 벗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천정환, 앞의 글을 참조할 것.

문 : 총독정치에 대해 불평이 있는가.

답 : 처자가 없으므로 아무런 불평도 없다.²²⁾

이러한 朱宗基의 태도는 ‘협의를’ 벗어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독립’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거나, ‘독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도 없으며, 더 나아가 ‘협박’ 때문에 3·1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한다.²³⁾ 협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에 진술이 따라가는 것이다.

실제로 안성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송우필은, 1919년 5월 5일 안성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가”란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희망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²⁴⁾ 그러나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독립을 “바라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조선독립을 - 필자)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방면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지 않는다고 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²⁵⁾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의 의사가 없고, 불만도 없다는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발언이 이렇듯 불평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부인하는 두 방향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평의 표현과 독립의 의사표명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 중 36.7%, 농민 중 59.7%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들은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하면서도, ‘독립’은 바라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군 농민 金時然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문 :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가.

답 : 그렇다. 바라고 있다.

문 : 그 때문에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답 : 그렇다.

문 : 왜 독립을 바라는가.

답 : 그것은 잘 모르겠다.

문 : 총독정치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가.

답 : 없다.²⁶⁾

22)三一運動 XIV. 朱宗基 訊問調書.

23)三一運動 XIII. 金起先 訊問調書.

24)三一運動 XIII. 宋禹弼 訊問調書.

25)三一運動 XIV. 宋禹弼 訊問調書.

26)三一運動 XIV. 金時然 訊問調書.

독립을 바라고 있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불렀지만, 정작 왜 독립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며,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金時然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위협적인 조사과정 속에서도 ‘독립’을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표 6>을 통해, 농민들은 ‘독립’과 ‘불만’의 관계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농민 중 상당수는 金時然의 경우처럼 독립을 바라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나도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朴龍業의 진술이나,²⁷⁾ 조선의 독립을 바라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李萬福의 진술,²⁸⁾ “우리나라를 되찾기 때문”에 불평은 없지만 독립을 희망한다는 金光五의 진술은 가장 전형적인 농민들의 사례를 보여준다.²⁹⁾

이렇듯 농민들이 모호하게 ‘독립’의 의미를 파악, 진술하고 있었던 반면, 학생들은 불평은 없다고 하는 중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安尙哲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독립에 찬성하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는 총독정치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화가 일본 때문에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일본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독립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인의 압제를 받는 것이 필요 없으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³⁰⁾

그 밖에도 총독정치에 대해 특별한 불만은 없지만, “문명국은 모두가 독립을 하고 있으므로 조선도 독립을 희망한다”거나,³¹⁾ “조선도 차차 문명국이 됨에 따라 日本人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향유하고자 생각하고, 또 일본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³²⁾

신문과정에서 ‘독립을 희망하지만 총독정치에 대한 불평은 없다’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농민과 학생의 발언은 이렇듯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은 총독정치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배우고 익힌 ‘보편적 가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비하여 金時然을 비롯한 농민들은 독립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27) 三一運動 XIV. 朴龍業 訊問調書.

28) 三一運動 XIV. 李萬福 訊問調書.

29) 三一運動 XIV. 金光五 訊問調書.

30) 三一運動 V. 安尙哲 訊問調書.

31) 三一運動 V. 許益元 訊問調書.

32) 三一運動 V. 金秉璿 訊問調書.

농민들 중에서는 구금 및 신문 과정에서 독립의 의미를 깨우치는 경우도 있었다. 안성 농민 崔得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독립의 뜻을 전에는 몰랐으나 이 사건 때문에 京城에 오고 나서 같은 감방의 사람들한테서 비로소 독립의 뜻을 듣고 독립을 바라게 된 것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별 뜻도 모르고 남이 만세를 부르니까 나도 불렀을 뿐이다.”³³⁾

그 외에 權中七은 “만세를 불렀을 때에는 독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불렀기 때문에 불렀”으나, “안성경찰서에서 같이 있던 자로부터 들어서” 독립의 의미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³⁴⁾ 孫定五도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³⁵⁾

나아가 李奎昌의 경우, 1919년 5월 9일 안성경찰서의 신문에서는 조선 독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³⁶⁾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행해진 신문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때 그는 만세를 불렀던 당시에는 독립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³⁷⁾ 이는 구금 및 신문 과정에서 독립의 의미를 깨우치고 독립을 바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전체적으로 3·1운동 신문조서에서 등장하는 학생과 농민은 그 진술 양상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비교적 ‘독립’과 ‘불만’을 자신들의 언어로 정리하여 표현하였다면, 농민들은 정교한 언어로 자신들의 불만과 독립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농민들은 ‘독립’을 주장하였다.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은 3·1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행위는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독립’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 ‘독립’을 발화하면서, 모호했던 ‘독립’의 의미는 구체화하였다. ‘독립’의 의미를 잘 모르던 농민들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독립’을 주장할 근거를 획득하였다. 독립의 의미도 모르고,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무지한 사람들은, 만세를 고창한 이후에야 그 의미를 파악하여 내면화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만세의 고창은, 그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독립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33) 三一運動 XIV. 崔得仁 訊問調書.

34) 三一運動 XIV. 權中七 訊問調書.

35) 三一運動 XIV. 孫定五 訊問調書.

36) 三一運動 XIII. 李奎昌 訊問調書.

37) 三一運動 XIV. 李奎昌 訊問調書.

V. 結語

이 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을 통해, 신문조서에 드러난 학생과 농민들의 진술에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려 하였다. 우선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남아있는 3·1운동 신문조서 자료들은 경성,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학생이, 교외에서는 농민이 대부분 참여하였다는 인식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3·1운동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20~30대로, 이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신문조서에서 ‘불만’과 ‘독립’이라는 두 키워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식민당국자들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참여했는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총독정치에 대한 ‘불만’을 묻는 것은 운동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불만을 토로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재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불만의 근거로 삼았다. 교육과 민족차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은 대부분 학생이었다. 이는 고등보통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진학 과정에서 느꼈던 불평등과, 향후 관료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농민들은 세금, 묘지, 순사의 만행과 같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불만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사람들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불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불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독립을 원한다고 식민당국자에게 발언하였다.

이들 중 학생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만’과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원한다는 소위 ‘확신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만이 없지만 독립을 바란다는 이들도 자신들의 논리를 보편적 가치에 빚대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상당수의 농민들은 자신들이 왜 독립을 원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독립만세’의 구호를 외칠 때에는 독립의 의미를 몰랐으나, 붙잡혀 들어온 이후에 독립의 의미를 알게 되어 독립을 원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는 이들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문내용들은 특정한 원인의 결과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위 이후에 ‘독립’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구도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3·1운동은 그 자체로 민족적 혹은 민중적 저항의 산물이었지만, 동시에 3·1운동을 통해 ‘독립’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인(2009), 「기억의 탄생-민중시위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현실』 74.
- 국사편찬위원회 편(1986~200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 권태억(2013), 「1910년대 일제의 ‘문명화’ 통치와 한국인들의 인식: 3·1운동의 ‘거족성’ 원인 규명을 위한 하나의 시론」, 『한국문화』 61.
- 김소영(2010), 「대한제국기 ‘국민’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라나지트 구하(김택현 역)(2008), 『서발턴과 봉기』, 박종철출판사.
- 박찬승(1989),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 배성준(2009),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정은(2009),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 전상숙(2009), 「‘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 ‘민족대표’의 딜레마」, 『개념과소통』 2-2.
- 趙成雲, 「資料解題 :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URL: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hd&fileName=intro_hd.pdf.
- 천정환(2009), 「소문(所聞) · 방문(訪問) · 신문(新聞) · 격문(檄文) - 3·1운동 시기의 미디어와 주체성」, 『한국문학연구』 36.
- 한금순(2015),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
- 허영란(2009),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 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국문 요약

본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운동편을 통해, 신문조서에 드러난 학생과 농민들의 진술에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려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신문조서에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경성의 학생, 경기도의 농민들이 조사받은 기록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하였다. 신문조서에서 말한 불만사항들을 정리하고, 그러한 불만이 ‘독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던 데 비하여, 농민들은 총독정치 하에서의 생활 및 세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스스로의 불만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처벌을 경감받고자 하는 태도를 뛰어 넘어, 불만은 없지만 독립은 필요하다는 방식의 사고를 하는 조선인들이 확인된다. 이들은 우선 독립 만세를 외친 이후에 감옥에서 독립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다. 3·1운동의 의미는 행위 이후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3·1운동, 삼일운동, 신문조서, 불만, 독립,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